

1980년대 일본 패션 텍스타일의 조형성 연구

- 구성요소와 속성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정* · 서은영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박사수료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패션디자인이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은 시기인 1980년대 ‘일본 패션’에 주목한다. 당시 일본 패션은 서세동점의 관점에서 편성되어 온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일본이 패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텍스타일을 사용하였던 것에 착안하여 198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텍스타일 샘플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당시 일본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의 조형성을 구성요소와 속성요소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패션 소재 텍스타일 혁신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는 일본 각 지역 섬유시험연구기관의 개발품 대회인 ‘전국섬유시험장 시제품 제작 및 협력작품전’에서 1982년, 1983년 수상한 텍스타일 280점 중 267점이다. 1980년대 초기에 개발된 텍스타일 사례를 통해 당시 일본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의 생산 현장에서 실현된 텍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1982년 텍스타일과 1983년 텍스타일을 ‘원사’, ‘조직’, ‘후가공’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결과 공통적으로 원사 연구에 의한 텍스타일이 각각 61.8%,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새로운 텍스타일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인’, ‘질감’, ‘기능’의 세 가지 속성요소로 분석한 결과 1982년의 텍스타일에서는 ‘질감’이 48.5%, 1983년의 텍스타일에서도 ‘질감’이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새로운 질감을 창작하고자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1980년대 일본의 패션 텍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형성은 질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절정기를 누린 프린트 텍스타일과의 차별지점이기도 하다. 문양이나 색으로 시각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디자인에서 나아가, 새로운 실을 디자인함으로써 새로운 질감을 디자인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패션 텍스타일, 일본 패션, 질감, 원사

*교신저자: 김민정, 4ourt@4ourt.co.kr

접수일: 2018년 5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0일

I. 서론

1. 연구목적

1980년대는 일본의 패션디자인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시기이다. ‘다른 어떤 패션 세계보다 크고, 더 복잡하고, 탄탄하게 나이를 먹은 파리패션’(Crane, 1993)에 동양의 패션디자인이 감동을 준 이유는 서세동점의 관점에서 편성되어 온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의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본 패션의 미의식과 그것이 드러나는 유형을 고찰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예컨대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나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 등의 디자인을 통해 서구의 의복구성을 부정하는 방식의 미적가치에 대한 연구(Yim, 2007), 일본의 전통복식의 요소가 현대패션에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Choi & Lee, 2007), 일본의 미의식을 복식을 통해 고찰한 연구(Kim, 2014; Li & Choi, 2015), 일본 패션디자이너들의 서구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Cho, 2009)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일본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패션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텍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텍스타일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으며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고 패션디자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패션 텍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실물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을 경우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연구의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인지 국내 연구는 현대 일본패션에 반영된 전통적인 문양에 관한 연구(Lee, 2006)나 개별 디자이너들의 소재 사용방식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연구(Chung, 2006) 등 전

통 문양의 재해석에 대한 미학적 고찰이나 패션디자이너들이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텍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일본 패션’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다. 1960-70년대 일본의 텍스타일은 산업적 부흥기를 거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자적인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고, 텍스타일 생산자들이 패션디자이너들의 서구 진출이라는 과제와 만나 그 어느 때보다 개발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일본에서 생산된 텍스타일 샘플의 사례를 분석하여 당시 일본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의 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험과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어떠한 조형적 특성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패션디자인이 새로움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텍스타일의 생산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일본 패션의 혁신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텍스타일의 조형성 분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텍스타일 분석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패션 텍스타일 기획과 개발현장에서 재해석되어 패션 소재의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1980년대 일본의 패션 텍스타일의 역사적 의미를 문헌을 통해 고찰한 후 당시의 텍스타일 실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패션 텍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형(造形)’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텍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및 구성 방식이

최종 형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의 텍스타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다양한 원사와 조직관계, 수많은 공정들이 얹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단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텍스타일의 개발자가 직접 기술한 제작 목적과 특징, 원사의 종류, 생산 도구 및 공정, 완성된 텍스타일의 외관 등을 다각적이고도 면밀히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분석방식은 첫째, 출품된 텍스타일의 개발 중점 내용을 텍스타일의 구성요소에 의해 분류한다. 텍스타일의 기본 구성요소는 ‘원사(thread)’, ‘조직(structure)’, ‘후가공(postprocess)’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텍스타일이 이 가운데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는지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로 배속한다. 둘째, 구성요소로 분류된 텍스타일을 속성(屬性) 요소로 분류한 후 그 비율관계를 살펴본다. 속성요소는 무늬와 색으로 나타나는 ‘디자인(design)’, 시각적 또는 촉각적 입체감인 ‘질감(texture)’,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을 적용한 ‘기능(func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 분석 과정을 통해 당시의 패션 텍스타일 연구의 중심에 어떤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구현된 텍스타일은 어떠한 조형적 특질을 나타내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는 텍스타일은 일본 최대의 패션 텍스타일 자료관인 텍스타일 메테리얼 센터(Textile Material Center)에 소장된 1982년, 1983년 2개년의 텍스타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의 텍스타일로 한정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1980년대 초반의 텍스타일 가운데 해당 연도의 텍스타일만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일본 각 지역 섬유시험연구기관의 기술 개발에 의한 시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국 섬유시험장 시제품 제작 및 협력작품전’을 1963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하여 2018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20회인 1982년에는 498점, 21회인 1983년에는 283점이 출품되었다. 출품작의 수에는 크게 차이

가 있으나 창의성, 시장성, 품질이나 성능, 생산기술의 4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하여 1982년에 142점, 1983년에 138점의 입상 작품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입상 작품 280점 중 267점의 실물과 자료를 직접 촬영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입상작 중 의상 또는 텍스타일 아트로 출품되어 실물 텍스타일 샘플이 없고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13점의 출품작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션 텍스타일’은 패션 디자인에 사용하는 소재의 의미이자 인테리어 텍스타일과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II. 일본 패션 텍스타일의 역사적 상황

1. 일본 패션디자인의 서양 진출

1970년대에 일본의 패션산업은 ‘서양 이외의 문화권으로부터 태어난 옷이 세계성을 갖는 것을 증명’하고 ‘21세기 패션으로의 새로운 미의식을 유도’하고자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1977년에 하나에 모리(Hanae Mori)가 일본인 최초로 프랑스 오트 쿠튀르 협회에 가입하고 1981년에는 야마모토와 가와쿠보가 파리에서 데뷔함으로써 전위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일본 패션’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일본은 패션에 대한 서양의 미의식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면서 세계패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 모더니즘과 동양적 미학을 융합시킨 매혹적인 콘셉트와 함께 그 디자인을 지탱하는 텍스타일이 직물의 미술, 혹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Mishima 1988). 예컨대 가와쿠보와 야마모토는 의복에 구멍을 내어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거나 너털 너털하게 매달고 늘어뜨렸는데 이는 서양적 표현방

식과는 다른 시점에서 장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일본의 복식 연구가인 후카이 아키키(深井晃子)는 이를 미(美)와 대조되는 ‘초라함’의 표현으로 서양 패션의 개념을 흔들었다고 언급하였다(Kim, 2013). 이러한 특성은 의복 만들기에 있어서 소재에 90%의 힘을 쏟는다는 가와쿠보가 사용했던 텍스타일이나 1985년 미야케가 사용한 텍스타일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Figure 1>은 1982년 가와쿠보가 사용했던 텍스타일로, 너털너털함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견 수직(手織)으로 보이지만 슬릿은 자카르(jacquard) 제작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었고 경사와 위사 모두 울이다. 위사가 가로로 길게 뜨는 이중직 구조로 조직을 구성하여, 제작이 완료된 후 떠 있는 위사를 커팅하고 다시 수축가공을 하여 펠트 덩어리와 같은 가닥들이 완성된 것이다.

<Figure 2>는 1985년 미야케의 컬렉션에 사용된 소재이다. 전체적으로 테슬처럼 배치된 울 가닥들은 원단에 부착한 장식이 아니라 직물의 조직과 원사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서 한 장의 천으로만 완성된 의복이다. <Figure 1>과 마찬가지로 경사와 위사 모두 울로 구성되어 후가공을 통해 수축을 시켰고, 위사를 띄우는 조직으로 구현되었다. 열과 마찰에 안정성이 약한 울을 수축 가공함으로써 소재의 단점을 표현 방식의 하나로 승화시킨 것으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다. <Figure 3>은 미야케의 컬

렉션에 사용된 소재이다. 박의 과실을 가늘게 잘라 말린 간표우(かんぴょう)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한 올 한 올 평면적으로 넓게 만든 실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텍스타일 기획자들의 새로운 소재 개발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어 텍스타일을 기초로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소재가 지닌 본래의 특성에서 실루엣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냈던 것이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와 텍스타일 기획자가 서로 영감을 공유하며 텍스타일 기획자가 새로운 표현방식을 탐구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다.

후카이는 일본 디자이너들은 기성소재를 의식적으로 피해 새로운 질감을 추구하였던 것, 텍스타일 디자이너나 기술자와 협동하여 독창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 독자의 소재를 개발하였던 것 등 디자이너와 일본 텍스타일 산업과의 공동작업 관계에 주목하였고 그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이 높다고 평가하였다(Barbican Centre, 2010). 이후 일본의 패션디자인은 다양한 소재 개발과 소재 사용의 방식을 통해 그들의 철학을 견고하게 구축해 간다. 서양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맥락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여 그들만의 위치를 갖게 된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천과 신체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야케의 ‘A-POC’, ‘132.5’ 등의 컬렉션 등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Figure 1. 레이 가와쿠보.
From Kim. (2013). p. 91.



Figure 2. 이세이 미야케 1.
From Kim. (2013). p. 91.



Figure 3. 이세이 미야케 2.
Photographed by the author.
(November 4, 2009).

이와 같이 일본의 패션 텍스타일은 일본 패션의 미의식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는 일본의 텍스타일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기 시작한 기점으로서 무늬나 색상과 같은 디자인 개발 뿐 아니라 원사 및 조직과 같은 소재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국내 텍스타일 산업구조의 재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직물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서 지역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술을 구현하여 왔다. 직조와 염색, 프린팅 등 기모노에 표현된 기법들은 각 분야별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며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기술과 제품을 자랑하는 산지가 형성되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

2차 대전 이후 황폐했던 일본의 섬유산업은 포백한 면 생지를 대량 수출하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여분을 염색하는 데서 시작된 날염도 대량생산과 수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는 미국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합성섬유 날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대량생산을 했던 면 날염과 달리 다중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고급화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합성섬유를 가공하는 원사의 제조 기술의 발전에 의해 섬유 강국의 명성을 확립하였다(Mishima, 1978).

그러나 세계적으로 날염 생산 공장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1978년을 피크로 일본의 날염산업도 급격하게 쇠퇴되었다. 1980년대 일본은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수출은 각국의 보호주의에 의해 곤란을 겪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격변하여 경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섬유산업은 한국 등 이웃국가들의 성장으로 커다란 변혁이 있는 시기였다. 섬유업계는 자연히 구조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지방의 공

적 시험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원조와 함께 업계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여 첨단기술의 도입부터 전통산업의 기술보존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일본의 패션 평론가 미시마 아키라(三島彰)는 이러한 산업적 환경변화가 기술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유지하고, 정성껏 소재를 취급할 수 있는 일본만의 특별한 산업 구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국제적 상황이 날염의 바탕천인 직물(織物)과 편물(編物)의 디자인을 대두시킨 것이다. 이것은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빛깔이나 무늬보다 천을 구성하는 원사와 조직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각 공정을 분업하는 구조인 일본의 섬유 산업 시스템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이너 등 소비자의 니즈에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들이기’에서 ‘짜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공장과 도매업자들은 생산원가 경쟁력보다도 부가가치 경쟁력이나 기획력을 중요시하는 방침을 선택하였다. 소비자와의 공감을 기반으로 고감도 기획을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특히 하라주쿠(原宿)는 새로운 패션의 발신기지가 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섬유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옷돌기 시작한다.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갈채를 받으며 기세를 떨쳤던 1980년대 중후반은 DC 브랜드(designer & character brand)들의 활약과 수입품을 포함하는 고액상품이 급증하고 시장이 활기로 가득 찼던 때이다(Kitabatake, 1995).

당시 일본 정부는 섬유산업이 매크로(macro)와 마이크로(micro)가 공존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70년대부터 지식집약화의 추진, 정보 시스템 추진, 기획·생산·판매의 수직적 연계,

패션 산업의 부흥이라는 섬유산업 비전을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기술혁신과 창조성, 정보화와 국제화를 통해 선진국 형태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다품종·소량·짧은 사이클에 대응한 공급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섬유제조기업이 패션디자인 문화의 성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1982년에 12명의 패션디자이너, 1984년에 7명, 1985에 8명의 패션디자이너가 유럽에 진출하는 등 일본의 패션디자이너는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Yuniya, 2006). 그러므로 패션디자이너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였던 일부 선진적인 텍스타일 기획자들의 개발품이 섬유산업 현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로서 1980년대의 일본 패션 텍스타일을 연구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III.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와 속성요소에 의한 분석

본 연구는 텍스타일의 기본 구성요소인 원사와 조직, 이후 실시되는 후가공을 텍스타일 구성의 세 가지 요소로 파악하여 분류한다. 텍스타일이 완성되기까지 주된 연구와 개발이 원사단계에서 물리적·화학적 가공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원사’에 배속하였다. 변화 조직 등 구조상의 연구가 중점일 경우는 ‘조직’에, 제직이나 편직 등 면재(面材)가 구성된 이후 물리적·화학적 공정이 더해져서 완성된 경우는 ‘후가공’에 배속하였다.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 후에 연구의 목적성에 따라 속성요소로 분류하였다. 속성요소는 완성된 텍스타일이 지니고 있는 문양, 색감, 질감, 성능 등 시각적, 촉각적, 기능적 특질을 고려하여 3가지로 구분하였다. 문양표현방식이나 배색을 위한 연구가 주된 목적성을 띠는 경우는 ‘디자인’, 텍스타일 자체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연사 가공이나

합사 등을 연구한 경우는 ‘질감’, 텍스타일의 미학적 고려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종래의 기술을 개선한 경우는 ‘기능’으로 구분한다.

본 장에서는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속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패션 텍스타일이 추구하였던 텍스타일의 속성을 규명하고 그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1. 1982년 텍스타일의 분류 및 분석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전국섬유시험장 시제제작 및 협력 작품전’ 20회를 맞는 1982년에는 출품된 작품 수는 498점이고 142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상작 가운데 실물 텍스타일 샘플이 없고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6점을 제외한 136점을 텍스타일의 구성요소에 의해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원사’에는 84점, ‘조직’에는 23점, ‘후가공’에는 28점이 분류되었다. <Table 1>에 각 요소별 수상 작품 및 특색 있는 텍스타일 샘플 이미지를 3점씩 제시하였다.

‘원사’로 분류된 것은 61.7%로 가장 높았다. 테크닉의 경향은 원사의 물리적·화학적 가공, 연사(捻絲) 연구 등에 초점을 두었다. 예컨대 <Figure 4>의 ‘메탈릭 가스리(緋)부인복’은 ‘기술진흥상’을 수상한 것으로서 메탈릭 가스리 가공장치를 사용하여 경사와 위사에 금속 가루를 가스리 형태로 가공한 후 제직하여 새로운 느낌의 라메 효과를 직물의 표면에 표현하고 있다. <Figure 5>는 강연사를 사용하여, <Figure 6>은 스웨이드로 만든 원사를 사용하여 새로운 표면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직’으로 분류된 것은 16.9%로 특수 직조설비, 특수 가공 효과를 발휘한 조직 등의 텍스타일이다. <Figure 7>은 이중직으로 부피감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8>의 ‘컴퓨터 니트 부인 슈트’는

Table 1. 1982년 텍스타일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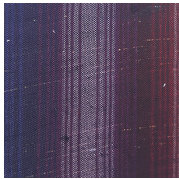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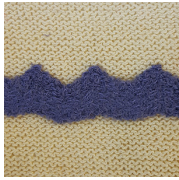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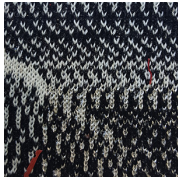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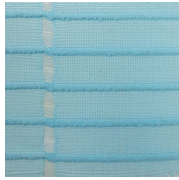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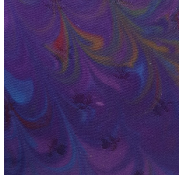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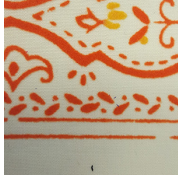

구분	수량	이미지			백분율
원사	84	 Figure 4. 메탈릭 가스리 부인복.	 Figure 5. 면 줄무늬 요류(楊柳).	 Figure 6. 스웨이드 얀.	61.8%
조직	23	 Figure 7. 부인용 슈트.	 Figure 8. 컴퓨터리트 부인 슈트.	 Figure 9. 여름 양상복.	16.9%
후가공	29	 Figure 10. 피콕 판타지.	 Figure 11. 다색 플로킹.	 Figure 12. 바이어스 서커.	21.3%
합	136	-			100%

Figure 4-12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1982년 최고상인 ‘통상산업대신상(通商産業大臣賞)’을 수상한 것이다. 전자제어 횡편기에 의한 자카르 무늬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유 곡선을 그리며 컴퓨터에 기억된 가로와 세로 방향에 파라미터(parameter)를 부여하여 자유 곡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횡편 3색 자카르 니트를 만들었다. 특히 회색 실버 라메사의 특징을 살려서 곡선 속의 사각형이 광선에 의하여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배색함으로써 원사와 조직과의 관계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Figure 8>은 편직 조직의 개발로 문양을 연구하였고 <Figure 9>는 경사와 위사의 일부를 조직점을 잡지 않고 슬릿을 만들고 있다.

텍스타일에 화학가공, 특수효과를 발휘한 염색,

질감 가공방법과 같은 효과를 구현한 것은 ‘후가공’으로 분류하였고 21.3%로 나타났다. <Figure 12>의 ‘다색 플로킹(flocking)’은 새로운 장치의 개발로 다색 플록 가공을 한 것이다. 여러 색으로 플록 가공하는 것은 무늬를 맞추는 공정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어렵다고 여겨져 왔으나 왕복운동을 하는 새로운 장치의 개발로 어떤 색의 플록가공이라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장비와 함께 가공방식의 개선으로 플록가공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문양과 색의 디자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Figure 10>과 <Figure 11>에서도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문양의 전개가 특징이다.

다음 항에서부터 각 구성요소로 분류된 텍스타일을 속성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원사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원사에 중점을 둔 개발로 완성된 84점의 텍스타일을 속성요소에 의해 분류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은 23점, ‘질감’은 43점, ‘기능’은 18점이다. 전체 84점 가운데 ‘디자인’은 27.4%, ‘질감’은 51.2%, ‘기능’은 21.4%로 나타나 원사개발의 목표가 텍스타일의 질감 표현을 위한 것이 과반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에 속한 텍스타일 23점은 주로 선염 직물이 대부분으로 <Figure 15>와 같이 비교적 시각적 특징은 미미하다. 그 가운데 가스리를 표현한 것이 14점에 이르는데, <Figure 14>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미의식이나 디자인의 개발보다는 일본의 전통적 텍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새

로운 방식을 탐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13>의 ‘슈트’는 <Figure 8>과 함께 최고상인 ‘통상산업대신상’을 수상한 것이다. 실크 리본과 견방사(絹紡絲)에 가스리 염색을 정교하게 구현하여 다양한 종류의 실을 짤 수 있는 토션리스(torsionless) 레이스기의 특징을 잘 활용하였다. 기존에 실시한 적 없던 원사에 가스리 색상을 부여하여 노블한 감각의 최고급의 소재로 완성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여 ‘디자인’에 배속하였다.

‘질감’으로 분류된 43개의 텍스타일은 <Figure 18>과 같이 강연사를 사용한 것이 11점, 합사나 교직에 의한 것이 27점, 그 외 참신한 소재 사용으로서 <Figure 16>과 같이 스웨이드 원사를 사용한

Table 2. 원사 연구에 의한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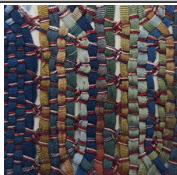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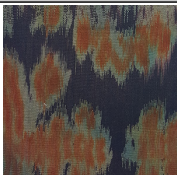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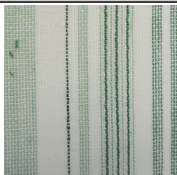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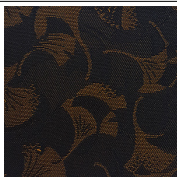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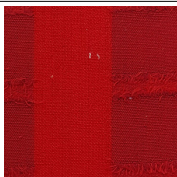
구분	수량	주요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23	배색 가스리염				27.4%
질감	43	신소재 합사 교연사 강연사				51.2%
기능	18	합사 원사가공 교직				21.4%
합	84		-			100%

Figure 13-21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것과 수축사를 사용한 것이 5점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강연사의 사용은 전통적인 치리멘(ちりめん)의 현대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견사를 강하게 꼬아 만들어 크레이프 질감을 나타내는 치리멘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고급 기모노를 대표하는 품목으로서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면이나 울뿐 아니라 폴리에스테르까지도 강연사로 만들어 치리멘을 현대화, 대중화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질감의 표현이 목적이었다.

이와 함께 합사(合絲)나 교직(交織)에 의한 텍스타일도 대부분 새로운 질감에 대한 탐구가 주요한 목적이다. 예컨대 <Figure 17>의 ‘서머 부클레’는 듀폰(Du Pont)에서 개발된 결속방법에 의해 제조된 실인 결속방적사(結束紡績糸)에 방모사를 혼입하여 부클레 느낌으로 만든 태번수사와 탄성이 강한 세번수 결속방적사를 교직하여 원사 특유의 요철모양으로부터 오는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방모사를 랜덤으로 투입하여 배색의 재미도 구현한 평직의 캐주얼 소재이다.

‘기능’으로 분류된 텍스타일은 방추성, 보온성 등 기능적 측면의 보완 및 새로운 분야 원단 개발이나 <Figure 20>, <Figure 21>과 같이 신축성 등 물성의 변화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다. <Figure 19>의 ‘부인복용’ 텍스타일은 ‘기술진흥상(技術振興賞)’을 수상한 것으로서 경사와 위사가 모두 견사인데, 위사에 쓰인 실은 화학가공개질사(化學加工改質絲)이다. 이는 견을 원사상태에서 물리적 가공과 화학적 가공을 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완성된 실이다. 이러한 가공을 통해 견 섬유의 문제점이었던 신축성과 세탁 후의 주름 문제가 해소된 텍스타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견사의 기능적 부분을 보완한 작업으로서 파악하여 기능에 배속하였다.

3) 조직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조직에 중점을 둔 개발은 23점이며 속성요소에

의해 분류하면 <Table 3>과 같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은 9점, ‘질감’은 11점, ‘기능’은 3점이다. 백분율로는 ‘디자인’ 39%, ‘질감’ 48%, ‘기능’ 13%로 조직 연구의 목표가 텍스타일의 질감 표현을 위한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Figure 23>은 새로운 장치 개발을 통해 무늬부분에 위사와 경사가 결합되지 않고 위사를 띄워서 무늬를 만드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것을 부병(浮柄)이라고 한다. <Figure 22>도 배색이나 가공 없이 작은 무늬들이 부병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Figure 24>와 같이 자카르 기법 또는 조직의 배합에 의한 무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질감’으로 분류된 텍스타일 중 <Figure 25>는 ‘섬유고분자재료연구소장상(纖維高分子材料研究所長賞)’을 수상한 것으로 과감한 입체감을 실현하였다. 변형 위사 2중 파일조직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도비직기에서 제작되었는데, 떠 있는 경사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색가공 공정을 먼저 실시한 후 떠 있는 경사를 커팅 한 것이다. 직물의 표면에 경사가 타래로 배열되고, 동시에 작은 파일을 규칙적으로 배열시킨 텍스타일로 질감이 극대화되었다. 이처럼 질감을 넘어 과감한 입체감을 표현한 텍스타일이 <Figure 26>과 같은 직물뿐 아니라 <Figure 27>과 같이 편물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능’으로 분류된 텍스타일은 3점으로 <Figure 28>은 이웃이 되는 2개의 경사가 서로 맞물리면서 짜져서 여름용 통기성을 필요로 하는 직물에 많이 활용되는 카라미직(絡織)을 통해 밀도가 성기면서 청량감을 표현하기 위한 조직 연구를 하여 부인용 텍스타일로 완성한 것이다. <Figure 29>는 꼬임없이 다양한 실을 짤 수 있는 조직 연구, <Figure 30>은 매트로서의 탄성과 흡습성을 연구한 조직 연구로 ‘기능’에 배속하였다.

Table 3. 조직 연구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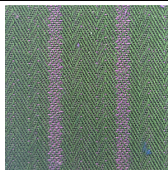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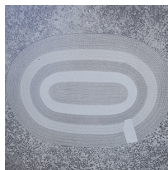
구분	수량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9	라페트 자카르	 Figure 22. 춤추는 에바호리 (繪羽羽織).	 Figure 23. 제트 부병 직물.	 Figure 24. 백세틴 스트라이프.	39%
질감	11	킷팅 변화조직	 Figure 25. 카우보이 킷.	 Figure 26. 선엽 태피터 킷격자.	 Figure 27. 2색 자카르.	48%
기능	3	결속 방적사	 Figure 28. 나가모리 레노크로스 (ナガモリレノクロス).	 Figure 29. 토선리스 투피스.	 Figure 30. 니트 튜브 매트.	13%
합	23		-			100%

Figure 22-30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4) 후가공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후가공에 중점을 둔 개발은 전체 136점 가운데 29점이며 속성요소에 의해 분류하면 <Table 4>와 같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은 17점, ‘질감’은 12 점이고 ‘기능’으로 분류된 것은 없었다. 백분율로는 ‘디자인’ 58.6%, ‘질감’ 41.4%로 후가공 연구의 목표는 텍스타일의 무늬나 색상 표현을 위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17점의 텍스타일 가운데 <Figure 31>의 ‘피코크 환타지’는 여성복용 견직물이다. 생사로 짠 자카르 직물로서 열처리를 하지 않고 상온에서 염색을 순식간에 끝내는 완전히 새로운 염색기법의 개발에 의한 것이다. 특히 마블

링 무늬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염색 방식인 스미나 가시(墨流し)를 현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Figure 32>는 쪽 염색에 발염가공으로 문양을 만들었고, <Figure 33>은 편직 후 화려한 프린트 가공으로 문양을 표현한 텍스타일이다.

<Figure 34>와 <Figure 36>는 일견 문양의 표현이 대두되지만 제작자는 울의 기모 가공을 통한 질감 표현을 목표로 한 것에 중점을 두어 ‘질감’으로 배속하였다. <Figure 35>의 ‘요류 리플’은 경사는 면, 위사는 면 강연사로 짠 직물인데,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물을 프린팅 하여 프린팅 부분을 수축시킨 것이다. 그 결과 원래 있던 주름의 질감에 다시 무늬를 따라 생기는 질감의 차이가 특징

Table 4. 후가공 연구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구분	수량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17	마블링염색 플록가공 전사날염 천연염색				58.6%
질감	12	기모가공 리플가공 감량가공 플리즈 가공				41.4%
합	29		-			100%

Figure 31-36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적이다. 이처럼 후가공을 다층적으로 행하여 문양이나 색깔, 표면처리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983년 텍스타일의 분류 및 분석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본 절에서는 1983년도 제21회 ‘전국섬유시험장 시제제작 및 협력 작품전’의 수상작을 살펴본다. 출품작은 283점이고 그 가운데 138점 선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물 텍스타일 샘플이 없고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7점을 제외한 131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구성요소에 의해 분류한 결과 ‘원사’에는 74점, ‘조직’에는 35점, ‘후가공’에는 22점이 분류되었고 각 요소별 수상 작품 및 특색 있는 텍스타일 샘플 이미지를 <Table 5>에서 3점씩 제시하였다.

‘원사’로 분류된 것은 56.5%로 1982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텍스타일은 <Figure 39>의 ‘여름 옷감’으로 최고상인 ‘통신산업대신상’을

수상하였다. 코마사(combbed yarn)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짠 면직물이다. 원사의 연사가공을 연구한 것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유지하면서도 탄력 있고 안정적이며 여름에 요구되는 시원함을 구현한 텍스타일이다. <Figure 37>은 강연사에 의해, <Figure 38>은 굵게 가공한 울이 특징적이다.

‘조직’으로 분류된 것은 26.7%인데, 전년도 17%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다. <Figure 40>과 <Figure 41>와 같이 변화조직이나 특수조직의 실험이 풍성해진 것이 특징이며 <Figure 42>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히다직(ヒダ織)은 옷이나 옷감 등에서 천이 접힌 부분처럼 보이도록 가늘고 긴 줄무늬가 생기도록 짜는 조직인데, 위사에 수용성 비닐론을 넣어 제작할 수 있도록 입체조직을 구성하여 제작한 후, 수용성 비닐론은 용해하여 파일이 형성되는 입체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후가공’으로 분류된 것은 <Figure 44>의 기모가공, <Figure 45>의 프린트 가공 등 16.8%로 전년도에 비해 약 5% 줄었으나, 약품처리에 의한 새로운 표현방식, 천연염색의 산업화 연구 등 다양성

Table 5. 1983년 텍스타일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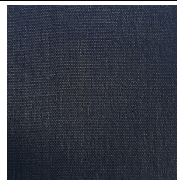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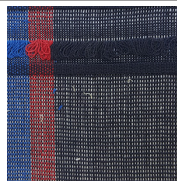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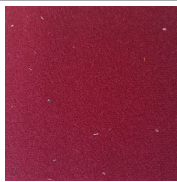

구분	수량	이미지			백분율
원사	74				56.5%
		Figure 37. 웨이브 스트라이프.	Figure 38. 홉스판 여성복.	Figure 39. 여름 옷감.	
조직	35				26.7%
		Figure 40. 파일 필름 커트.	Figure 41. 사선무늬 오비.	Figure 42. 변형 히다직(ヒダ織) 옷감.	
후가공	22				16.8%
		Figure 43. 기포 전사염.	Figure 44. 소프트터치 기포 옷감.	Figure 45. 이레굴러 새틴.	
합	131	-			100%

Figure 37-45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에 있어서는 유사하였다. <Figure 43>의 ‘기포 전사염’은 기포성이 있는 계면활성제에 반응성 염료를 넣어 무늬를 만들고 화학약품으로 전처리한 견직물에 전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문양표현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항에서 각 구성요소로 분류된 텍스타일을 속성요소로 분석한다.

2) 원사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1983년 원사에 중점을 둔 개발로 완성된 텍스타일은 74점이며 이것을 분석하여 속성요소로 분류하였다. <Table 6>에서와 같이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과 ‘질감’으로 분류된 것이 33점으로 같은 수치로 나타났고, ‘기능’에는 8점이 분류되었다.

백분율로는 ‘디자인’과 ‘질감’은 44.5%, ‘기능’은 11%인데 1982년 ‘디자인’이 27.4%였던 데 비해 비중이 급격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Figure 46>과 같이 전통적 무늬인 가스의 표현에 관련된 텍스타일이 20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7>, <Figure 48>에서는 복합색상을 표현하기 위한 선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질감’을 표현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나 <Figure 49>는 조직을 다양화하여 표현하는 자카르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같은 조직으로 색상과 무늬를 표현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한 텍스타일이다. <Figure 50>,

Table 6. 원사 연구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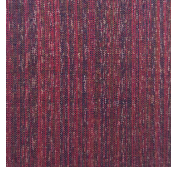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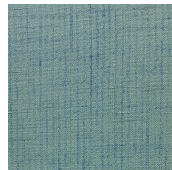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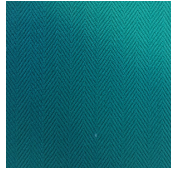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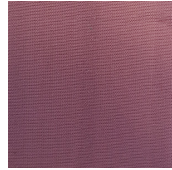
구분	수량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33	배색 사염 가스리염	 Figure 46. 일본 옷.	 Figure 47. 니트 무명 실.	 Figure 48. 스캐터드 코듀로이 (scattered corduroy).	44.5%
질감	33	혼방사 연사 교직 열접착사	 Figure 49. 새틴 자카르.	 Figure 50. 후쿠레 니트 생지.	 Figure 51. 팬시 크레이프.	44.5%
기능	8	연사 방추가공 혼방사	 Figure 52. 팬시 스트라이프.	 Figure 53. 에메랄드 헤링본.	 Figure 54. 스판라이크 트리콧.	11%
합	74		-			100%

Figure 46-54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Figure 51>과 같이 면, 마와 같은 천연섬유와 수축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양감을 표현하는 등 천연소재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기능’으로 분류된 텍스타일에는 경량을 실현하기 위해 원사단계에서 벌기한 실을 독자적으로 고안한 <Figure 53>의 ‘에메랄드 헤링본’, 방추가공을 연구한 <Figure 52>, 스펀사 개발로 완성된 <Figure 54> 등이 있다.

3) 조직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조직에 중점을 둔 개발은 35점이며 속성요소에 의해 분류하면 <Table 7>과 같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은 10점, ‘질감’은 24점, ‘기능’은 1점이며 백분율로는 ‘디자인’ 28.6%, ‘질감’ 68.6%, ‘기능’

2.8%로 조직 연구의 목표는 질감 표현을 위한 것이 월등하게 많았다.

‘디자인’에 배속된 <Figure 55>, <Figure 56>은 직물과 편물에 문양을 표현하는 최적의 방식인 자카르의 조직화에 컴퓨터가 도입된 초기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Figure 57>은 경사 밀도를 변화시켜 순차적으로 세로 스트라이프 문양을 만든 것이다. 문양이나 색, 원사의 굵기 변화 없이 문양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 등은 치밀한 조직 작업에 의해 가능하였다.

‘질감’을 표현하는 테크닉은 <Figure 58>과 같이 변형조직의 연구가 많은 가운데, 원사와의 관계성에 의한 텍스타일 연구가 많다. <Figure 60>과 같이 파일의 장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구성 연구

Table 7. 조직 연구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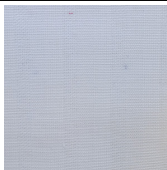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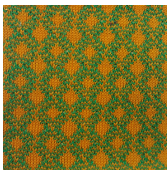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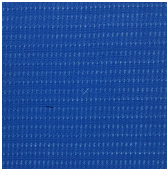
구분	수량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10	이중조직 밀도변화 변화조직	 Figure 55. 팬시 자카르.	 Figure 56. 레인보우 자카르 저지.	 Figure 57. 그라데이션 스트루.	28.6%
질감	24	특수조직 변형조직 카라미직 변화편직	 Figure 58. 타운 수트.	 Figure 59. 다이아 크로스 니트.	 Figure 60. High&Low 옷감.	68.6%
기능	1	변화조직	 Figure 61. 면 선염 직물.	-	-	2.8%
합	35		-			100%

Figure 55-61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와 함께 수용성 비닐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에 길이가 다른 파일을 형성시키는 것을 예로 볼 수 있다. <Figure 59> 또한 편직의 응용조직으로 입체감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지만 실켓 가공 면사와 울의 교편을 통해 천연섬유의 광택을 극대화한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기능’에 배속된 것은 <Figure 61> 하나였는데 하절기용 텍스타일로 밀도가 성글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 청량감을 추구한 것이다.

4) 후가공 연구에 의한 속성요소 분석

후가공에 중점을 둔 개발은 전체 131점 가운데 22점이며 속성요소에 의해 분류하면 <Table 8>과 같다. ‘디자인’으로 분류된 것은 10점, ‘질감’은 8

점이고 ‘기능’으로 분류된 것은 4점이다. 백분율로는 ‘디자인’ 46%, ‘질감’ 36%, ‘기능’ 18%로 1982년과 마찬가지로 후가공 연구의 목표는 텍스타일의 무늬나 색상 표현을 위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으로 배속된 <Figure 63>은 ‘섬유고분자재료연구소장상’을 수상한 것으로 특수한 약품처리로 문양을 만든 것이다. 천에 특수 약품처리를 하여 염료를 도포하였을 때 축염(促染) 작용에 의해 염료의 이동이 멈추면서 모이게 되어 태두리를 만들게 된다. 동시에 그 부분이 방염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 투여한 염료가 염색되지 않아 문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Figure 62>는 새로운 전사염의 연구, <Figure 64>는 발염법의 연구 등

Table 8. 후가공 연구 텍스타일의 속성요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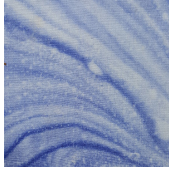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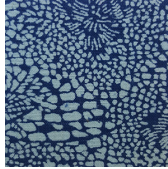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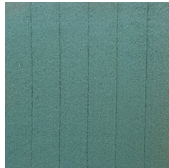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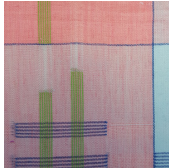


구분	수량	기법	이미지			백분율
디자인	10	특수약품 플록가공 발염	 Figure 62. 기포전사염 파티 드레스.	 Figure 63. 끝자락 염색 옷감.	 Figure 64. 일본 옷.	46%
질감	8	변화켓팅 기모가공 화학가공	 Figure 65. 팬시 크레이프.	 Figure 66. 에르나프(L-nappe).	 Figure 67. 서커 느낌 스트라이프.	36%
기능	4	난연가공 메탈릭 가공	 Figure 68. 변직물 도비 김염.	 Figure 69. 난연성 면.	 Figure 70. 메탈 텍스.	18%
합	22		-			100%

Figure 62-70 photographed by the author. (January 18, 2017).

문양표현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질감’으로 분류된 것 중 <Figure 67>은 일견 줄무늬 텍스타일로 보이지만, 연구기관인 기후현 섬유시험장(岐阜県繊維試験場)은 강연사를 사용하지 않고 후가공으로 물결 질감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밝히고 있어 질감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65>은 후가공에 의한 크레이프, <Figure 66>은 기모가공 연구로 완성된 텍스타일이다.

후가공에서 ‘기능’으로 분류된 텍스타일 가운데 <Figure 68>은 방추가공 연구이고, <Figure 69>는 가나가와현 공업시험장(神奈川県工業試験場)의 출품 텍스타일로 스크린 날염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시험장에서 개발한 난연제를 사

용한 것이 특징이다. <Figure 70>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 교직물에 니켈을 입혀서 후가공으로 금속성을 더한 텍스타일이다. 전도성을 갖게 되어 휴전방지, 전기 발열, 전자파 방지, 마이크로파 반사 등에 사용을 위해 개발하였다.

3. 구성요소별 속성요소의 비율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년의 텍스타일은 구성요소 가운데 원사에 의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Table 1). 구성요소를 속성요소로 분석한 결과로는 <Figure 7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질감’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36점의 텍스타일 가운데 49.6%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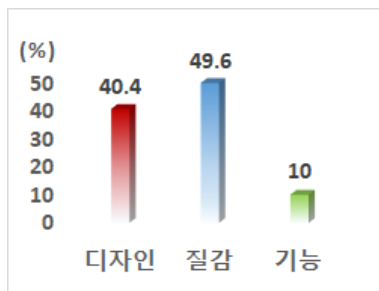


Figure 71. 1982년 텍스타일의 속성요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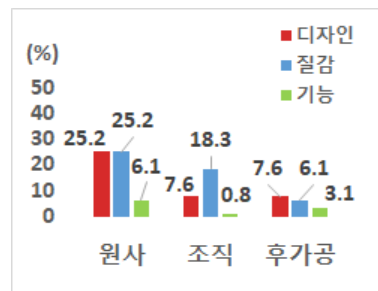


Figure 72. 구성요소별 속성요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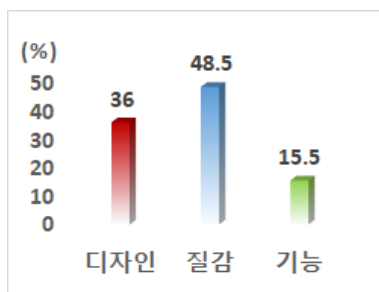


Figure 73. 1983년 텍스타일의 속성요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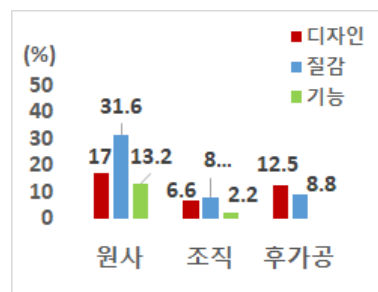


Figure 74. 구성요소별 속성요소 비율.

‘디자인’ 연구가 40.4%이고 ‘기능’의 연구는 10%로 나타나 당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텍스타일의 기능성 연구는 가장 비율이 낮았다.

구성요소별 속성요소의 비율은 <Figure 72>와 같이 나타나는데, ‘원사’와 ‘후가공’의 경우 ‘디자인’과 ‘질감’의 연구의 비율이 각각 25.2%와 25.5%, 7.6%와 6.1%로 비슷했지만,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한 텍스타일은 ‘질감’ 연구가 18.3%로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3년의 텍스타일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가운데 원사에 의한 연구가 56.5%로 가장 많았다(Table 5). 구성요소를 속성요소로 분석한 결과로는 <Figure 73>과 같이 1982년과 마찬가지로 ‘질감’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31점의 텍스타일 가운데 48.5%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디자인’은 4.5% 감소하고 ‘기능’은 5.5%증가하는 상황에서 ‘질감’은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74>에서 구성요소별 속성요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사’에서 31.6%, ‘조직’에서 8.1%로 속성요소 가운데 ‘질감’ 비율이 가장 높았고 ‘후가공’에서 8.8%로 1983년의 텍스타일 연구의 흐름 또한 원사에 의한 ‘질감’의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일본의 패션 텍스타일은 디자이너와 텍스타일 생산자와의 유기적 관계성에 의한 새로운 소재의 창작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패션디자이너가 텍스타일 디자이너나 기술자와 협력하여 독창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 독자 소재를 개발하는 공동작업 관계에 의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소재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패션 텍스

타일 개발에 있어서 일본사회가 지향하고 있었던 조형적 특질을 알아보기 위해 1982년, 1983년에 일본에서 개발되었던 패션 텍스타일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 텍스타일과 1983년 텍스타일을 ‘원사’, ‘조직’, ‘후가공’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한 결과 원사 연구에 의한 텍스타일이 각각 61.8%, 56.5%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텍스타일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원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인’, ‘질감’, ‘기능’의 세 가지 속성요소로 분석한 결과 1982년의 텍스타일에서는 ‘질감’이 48.5%, 1983년의 텍스타일에서도 ‘질감’이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새로운 질감을 창작하고자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1980년대 일본의 패션 텍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형성은 질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절정기를 누린 프린트 텍스타일과의 차별지점으로서 무늬나 색에 의한 디자인보다 다양한 구조와 질감을 가진 새로운 원사를 개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질감의 텍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실은 합사, 합연 등에 의해 구현하였고, 원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교직하거나 배열을 연구하여 입체적 질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이 패션디자이너와 밀접한 관계성에 의해 새로운 패션디자인으로 완성되어 일본 패션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직도 유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와 텍스타일 디자인개발 현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감의 창작’이 패션 텍스타일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서 바로 이해되어서 동시대의 패션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타일의 개발이 풍성해지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Barbican Centre. (2010). *Future beauty: 30 years of Japanese fashion*. London: Merrell Publishers Limited.
- Cho, J. M. (2009). A study on global strategies of Japanese designers that advanced to the western fashion industry.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4(-), 19-28.
- Choi, I. R., & Lee, S. H. (2007). Formative character of Japanese dress design in modern fashion. *Society for Culture of HAN-BOK*, 10(2), 141-151.
- Chung, J. Y. (2006).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fashion designer's avant-garde styled.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7(1), 411-419.
- Crane, D. (1993). Fashion design as an occupation: A cross-national approach. *Current Research on Occupations and Professions*, 8(3), 55-73.
- Kim, M. J. (2013). *A study on the textiles of Junichi Ara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Kim, Y. S. (2014). A study on the Japanese aesthetic in the Rei Kawakubo's desig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2), 113-131. doi:10.12940/jfb.2014.18.2.113
- Kitabatake, A. (1995). *繊維ファッション情報ガイド* [Information guide of textile and fashion]. Tokyo: 繊維産業構造改善事業協会.
- Lee, S. H. (2006). *A study on formative element of Japanese traditional textile image on the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i, A. J., & Choi, S. A. (2015). A study on aesthetic traits of Japanese traditional costumes in Rei Kawakubo's fashion: Focused on Comme des Garçons' f/w 2011~s/s 2016 men's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8), 125-135. doi:10.7233/jksc.2015.65.8.125
- Mishima, A. (1978).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の新時代* [A new era in fashion business]. Tokyo: 日本失業出版社.
- Mishima, A. (1988). *モード・ジャポネを対話する* [Converse about mode Japonese]. Tokyo: フジテレビ出版.
- Yim, E. H. (2007). Aesthetics of Japanese avant-garde fashion: Focusing on planarization of the bo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1), 50-65.
- Yuniya, K. (2006). *The Japanese revolution in Paris fashion*. New York: BERG.

A Study on Formativeness of Japanese Fashion Textile in 1980's **- Focused on Analysis of Component and Properties Element -**

Kim, Minjeong⁺ · Seo, Eun Young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fashion' of the 1980's when it was in the global limelight. At the time, Japanese fashion asked a question of what the beauty of fashion design is and whether it has the universal value along with the fashion trend moving from the West to East. Based on the fact that Japan used innovative textiles to present new perspectives and definitions of fashion, textile samples developed in Japan in the 1980's were analyz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extile innovation by classifying the formativeness of textiles based on its components and properties. The study used 267 textiles out of 280, which won in 1982 and 1983 from the 'National Fiber Contest, Trial Good Production and Cooperation Exhibition', a contest hosted by fiber research institutes from different regions of Japan. Through the textile cases from the early 1980'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extiles used in Japanese fashion at that time were understood. The study results show, first, after classifying textiles in 1982 and 1983 into 'thread', 'structure' and 'postprocessing' components, it was shown in common that textile from thread research was 61.8% and 56.55% respectively, indicat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making new textile was yarn. Second, through analyzing three property elements of 'design', 'texture' and 'function', 'texture' in textile of 1982 and 1983 occupied highest proportion of 48.5% and 49.6% indicating the most research was conducted to create new textur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most essential formativeness of 1980's Japanese fashion textile is texture. This is different from print textile which was the most popular in the 1970's. This confirms that the task of the time was to design new texture by designing new thread, going further than attempting to make visual changes with pattern or color.

Key words : fashion textile, Japanese fashion, texture, thread